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음 10월 18일) 제168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16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 경제 현안대응 '전북경제 기관·단체 특별 대책회의'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기업, 금융, 경제관련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트럼프 미국 대선후보의 당선에 따른 보호무역 정책과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에 따른 이슈별 지역경제영향, 군산조선소 존치 및 부정적 효과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 미국 트럼프 집권 본격화 되면

# '전북 경제 악영향 우려'

경제현안 대응 특별대책회의 분석 결과... 그리고 대응책은?

GRDP 3200억원 · 고용 3000명 감소 예상  
현재 수출 구조를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미FTA 재협상 대비 품목별 선제 대응  
한우 · 쌀 경쟁력 강화 위한 품질 고급화 주력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한 트럼프 당선으로 전북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깔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에서 약 3,200억원 가량의 GRDP 감소와 3,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경제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사항을 골자로 한 '트럼프 정부 정책전망과 전북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전북지역의 대비 수출구조는 2015년 현재 중국(16.1%)과 베트남(10.8%)에 이어 3위(9.6%)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지역 총 수출액 79억5,600만 달러 중 미국은 7억6,400만 달러를 차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강진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에 대해 "한미FTA 재협상 등 자국 산업 위한 보호무역주의와 동맹국의 국방비 분담 및 증액을 요구하는 등의 정책이 전망된다"며 "이럴 경우 통상압력 강화와 한우우 전면개방, 쌀 수입 개방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씨티그룹의 윌렘 뷰이터(Willem Buiter)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제시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거시적 영향분석 자료를 인용해 "세계 GRDP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전북에 적용할 경우 약 3,208억원의 GRDP 감소와 2,944명의 제조업 주력산업 중심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좀 더 세분한 산업별 영향 분석을 보면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경우 전북 생산량의 0.135%가 감소하고 589명의 고용감소와 0.102%의 GRDP가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농수산식품의 수입 규모가 1% 증가할 경우 전북은 지난해 대비 160명의 일자리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분야에서는 미국기업의 유턴으로 해외 직접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해외투자를 1% 줄일 경우 전북에서는 0.035%의 GRDP 감소가 추정됐다. 이에 전북은 '수출구조 다변화'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 정책의 커진 불확실성으로 전북은 현재의 수출 구조를 동남아, 아랍국가 등으로 다변화하고 대비 통상리스크 분산을 위해 수출 가능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재협상에 대비한 품목별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한우와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고급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오늘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무사히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 매일 INDEX  
2면 전북 국제결혼 점차 증가      5면 전주가 키운 ICT 기업 계속 성장      16면 농진청이 개발한 새로운 고구마 2종



전라선권 KTX 협의회 출범식. 김승수 전주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유근기 곡성군수, 서기동 구례군수, 조충훈 순천시장은, 정현복 광양시장, 주철현 여수시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전라선권 KTX협의회 출범식에서 '전라선권 KTX협의회 합의문과 공동건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 익산 만경강 철새 AI 발견

일반 농장 확산 가능성 커  
도 방역당국, 긴급 대책 나서  
만경강 중심 10km 이내  
가금류 농장 소독 확대

'오늘 수능한파 없다' 대체로 맑고 포근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이 17일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6일 "내일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6도, 수원 3도, 춘천 3도, 강릉 6도, 청주 3도, 대전 3도, 전주 4도, 광주 6도, 대구 4도, 부산 10도, 제주 12도 등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4도, 수원 15도, 춘천 13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대구 17도, 부산 18도, 제주 18도 등으로 관측된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m로 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서울·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익산에서 또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견 돼 방역당국이 긴급 대책에 나섰다. 1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만경강(익산 춘포면) 인근에서 포획한 야생조류(흰뺨검둥오리)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됐다. 지난 4월 7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가든형 식당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금류 30마리를 최종 매몰 처분한 이후 7개월 만에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이로써 농식품부가 지난 8월 18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라 '고병원성 AI 청정화'를 선언한 지 3개월 만에 발생한 것으로 청정화 지위도 상실하게 됐다. 더구나 최근 AI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지 채 10일도 안 돼 철새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 농장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번에 AI가 발생한 익산 만경강을 중심으로 10km 이내 가금류 농장에 대해 소독을 확대 실시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만경강 인근 가금류 농가는 약 250여개가 있으며, 닭과 오리 등 약 200여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민형 기자  
최순실 특검법, 법사위 처리 불발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이 16일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야당은 1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3당이 합의한 만큼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대체 토론 과정에서 법안에 대해 여러 문제들이 제기됐다"며 법안소위에 회부시켰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저와 여야 간사는 두 건의 특별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내일 오후 1시 법사위를 개의해 두 건의 법률안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남원에촌 by KENSINGTON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천년의 전통에 편안함을 더하다  
남원시와 (주)이랜드 파크가 함께하는  
명품 한옥 '남원에촌 by KENSINGTON' 그랜드 오픈!  
'고즈넉한 여유와 힐링이 있는 명품 한옥에서 자연을 벗삼아 느낌에 머물다!  
남원 에촌은 최기영 대목장을 비롯한 문화재 명장들이 옛 조선들의 지혜와 가치를 살리고 공정마다 혼을 담아 순수 건축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명품 한옥입니다.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 063-620-6174    남원에촌 by KENSINGTON : 063-636-8001-8003    www.NAMWONYECHON.com